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요인

백소영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n the Final Year Who Experienced COVID-19

So Young Baek

¹*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8권 제3호 2024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3, September. 2024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요인

백소영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n the Final Year Who Experienced COVID-19

So Young Baek

¹*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in the final year who experience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xamine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35 nursing students in the final year.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8.0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positive correlated with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was negative correlated with negative experiences due to COVID-19, career barriers. The factor that affect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in the final year who negative experiences due to COVID-19 was found to b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nclusion :**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education, career counseling, and promotion programs to improv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hich can affect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who negative experiences due to COVID-19.

Key words : Nursing student, Emotional regulation, Barrier, Self efficacy, Behavi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희망 및 능력과 직업 세계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단계로 진로를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구체화하여 직업 세계로 나가는 단계로 진로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1]. 대학생이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한 진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진로준비 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2]. 대학생 단계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로준비 행동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과 결정된 진로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이며[3].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 활동으로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각종 기자재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4]. 이러한 진로준비 행동은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학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향후 직업 및 사회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을 선택한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6]. 이로 인해 간호사는 다른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업무만족도와 높은 조기 이직을 나타내고 있다[7]. 특히, 간호대학생은 진로준비 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행위에 대한 동기와 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이직율은 감소하고 현실 적응력은 향상되었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 적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준비 행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9].

또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10]. 특히, 신입생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사회진출 시기와 가장 근접한 4학년인 졸업 학년의 진로준비 행동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확인되었다[3]. 또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진로준비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며, 장기적으로는 취업 포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3].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관련성 속에서 진로준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진로준비 행동을 저해하는 변인인 진로장벽은 개인의 지각 종류와 수준에 따라 진로선택과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1] 진로 계획에 있어서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9]. Crites[12]는 직장에서 개인이 직업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진로장벽을 잘 대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진로장벽은 개인이 지각하는 종류와 지각 정도에 따라 진로선택과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1] 진로장벽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진로 결정을 했더라도 결정된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진로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실망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3]. 이때 자신에게 주어진 진로와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14].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준비 행동도 높은 수준으로 실행한다고 보고하여[4, 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므로[16] 무엇보다 취업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하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예기치 않은 특수 상황에서의 학점 이수과 취업을 위한 준비는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감염병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육영역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은 생활이 제약된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 등으로 대학 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학업 운영 변화인 비대면 학습을 경험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학과의 특성상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교과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학습의욕 저하, 온라인 수업의 지루함을 느끼며 임상현장 실습 부족으로 간호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아쉬움을 호소하였으며[18], 수업방식 변화로 인한 불편감, 학습에 대한 집중력 저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받았다[19].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진로준비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불안이나 경제적 불안 등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진로준비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19].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으로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졸업 후 바로 임상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은 그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더구나 대학생 시기는 일생 중 가장 양호한 건강상태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활동적 시기[17]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경험한 대학생, 특히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을 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예기치 않은 부정적 상황에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 소재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 학년인 4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가 0.40일 경우 총 표본 수가 120 이상이면 80% 이상의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할 수 있다[20]고 하여 탈락률을 고려한 총 1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분한 결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총 135명이 최종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1)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광주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21]이 2020년 8월 개발한 질문지로 총 문항은 19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개발 당시 연구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를 부정적으로 경험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본다.

2) 진로장벽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Tak과 Lee[22]가 2001년에 개발한 직업 결정 장애 검사 도구로 총 문항은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23]가 1983에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자기효능감 질문지 단축형) 척도를 Lee와 Lee[24]가 변안한 도구로 총 문항은 25문항으로 구성한 것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Lee와 Lee[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뜻한다.

4)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Kim[3]이 1997에 개발한 도구를 Lee[15]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문항은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Lee[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수집되었다. 응답 내용은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가 완료된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고 작성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참여방법, 예측되는 부작용, 자발적 참여와 언제든지 중단, 철회가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발적 동의한 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와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 종료와 함께 즉시 폐기됨을 알리고 결과는 오직 학술지에 출판됨을 설명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 검정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s test를 시행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여자는 101명(74.8%), 남자는 34명(25.2%)이었고, 연령은 평균 22.7세로 22세 이하 93명(68.9%), 23세 이상 25세 미만 38명(28.1%), 26세

Table 1. Difference of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35)

Variables	Categories	n(%)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SD	t/F(<i>p</i>) Scheffe	M±SD	t/F(<i>p</i>) Scheffe	M±SD	t/F(<i>p</i>) Scheffe	M±SD	t/F(<i>p</i>) Scheffe
Gender	Female	101(74.8)	2.40±0.73	1.67	2.24±0.73	1.18	3.58±0.56	1.43	3.58±5.62	1.43
	Male	34(25.2)	2.67±0.64	(.200)	2.22±0.55	(.279)	3.62±0.43	(.234)	3.62±4.35	(.234)
Age(years)	≤22	93(68.9)	2.33±0.69	1.49 (.199)	2.18±0.68	0.55 (.741)	3.59±0.55	0.39 (.848)	3.67±0.83	0.40 (.847)
	23-25	38(28.1)	2.74±0.72		2.40±0.66		3.53±0.46		3.78±0.61	
	≥26	4(3.0)	2.53±1.20		2.29±0.99		3.72±0.46		3.75±0.83	
	Range	22-27(mean 22.7 year)								
	Religion	Christianity	54(40.0)	2.52±0.80	0.31 (.816)	2.35±0.85	0.90 (.445)	3.68±0.47	0.88 (.456)	3.70±0.68
Buddhism		7(5.2)	2.37±0.80	2.29±1.01		3.50±0.59		3.55±0.79		
Catholicism		5(3.7)	2.20±0.42	2.58±0.94		3.28±0.68		3.81±0.85		
None		69(51.1)	2.45±0.69	2.17±0.57		3.58±0.55		3.73±0.80		
Motivation for applying to nursing department	Aptitude and interest in Nursing	13(9.6)	2.32±0.87	0.80 (.549)	2.58±0.73	1.46 (.210)	3.58±0.57	0.46 (.802)	3.27±1.06	1.43 (.218)
	Higher employment	56(41.5)	2.42±0.61		2.17±0.73		3.55±0.58		3.71±0.73	
	Worthy occupation	10(7.4)	2.65±0.88		2.68±1.09		3.72±0.55		3.83±0.67	
	Stable job	18(13.3)	2.79±0.67		2.28±0.59		3.72±0.49		3.74±0.64	
	According to one's grade	5(3.7)	2.42±0.77		2.28±0.83		3.84±0.57		4.25±0.12	
	Recommendatio n to parents (people around)	33(24.4)	2.40±0.76		2.10±0.54		3.55±0.49		3.80±0.74	
College life satisfaction	Good	25(18.5)	2.48±0.80	0.40 (.671)	2.60±0.94	1.27 (.286)	3.70±0.27	0.25 (.778)	3.28±1.05	1.36 (.262)
	Moderate	102(75.6)	2.42±0.71		2.26±0.72		3.60±0.57		3.71±0.74	
	Poor	8(5.9)	2.57±0.74		2.11±0.53		3.54±0.45		3.85±0.74	
Practice satisfaction	Very good	29(21.5)	2.71±0.78	0.58 (.719)	2.71±1.18	1.99 (.085)	3.61±0.58	0.43 (.829)	3.53±0.90	0.85 (.521)
	Good	92(68.1)	2.54±0.72		2.43±0.75		3.59±0.55		3.74±0.75	
	Usually	14(10.4)	2.35±0.75		2.11±0.63		3.25±.051		3.68±0.76	
Satisfaction with grade from the previous semester	Very Good	38(28.1)	2.61±0.50	0.29 (.755)	2.05±0.48	1.45 (.233)	3.60±0.55	0.57 (.568)	3.97±0.66	0.81 (.447)
	Good	80(59.3)	2.33±0.71		2.92±0.35		3.12±0.68		2.94±1.33	
	Moderate	5(3.7)	2.38±0.65		1.95±0.73		3.62±0.50		3.50±0.78	
	Poor	10(7.4)	2.50±0.75		2.29±0.73		3.61±0.57		3.77±0.77	
	Very bad	2(1.5)	2.42±0.72		2.28±0.58		3.45±0.43		3.68±0.72	
Economic status	Good	22(16.3)	2.68±0.65	0.38 (.769)	2.19±0.58	.136 (.938)	3.54±0.44	0.35 (.787)	3.82±0.47	.026 (.852)
	Moderate	105(77.8)	2.43±0.73		2.26±0.73		3.59±0.56		3.69±0.79	
	Poor	8(5.9)	2.55±0.66		2.19±0.50		3.71±0.23		3.79±0.68	
Health status	Good	38(28.1)	2.56±0.65	0.85 (.432)	2.22±0.51	1.73 (.183)	3.60±0.47	0.64 (.527)	3.90±0.75	0.94 (.392)
	Moderate	90(66.7)	2.40±0.75		2.21±0.73		3.61±0.55		3.67±0.78	
	Poor	7(5.2)	2.69±0.53		2.71±0.80		3.60±0.47		3.60±0.60	

M=Mean, SD=Standard Deviation

이상 4명(3.0%)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54명(40.0%)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 ‘높은 취업률’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6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생활 만족도는 ‘중’이 102명(75.6%), 실습 만족도에서 ‘중’이 92명(68.1%)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직전 학기 학점 만족도는 ‘만족’이 80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 정도는 ‘중’이 105명(77.8%), 건강상태도 ‘중’이 90명(66.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정도

대상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5점 만점에 2.46 ± 0.71 점이었고, 진로장벽은 3.59 ± 0.53 점이었다. 진로준비 행동은 5점 만점에 3.17 ± 0.87 점이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2 ± 0.50 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차이

대상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4.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준비 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과 음의 상관관계($r = -.33, p < .001$)가 있었고 이는 대상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장벽과 음의 상관관계($r = -.57, p < .001$)가 있었으며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할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

Table 2.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 = 135$)

Variables	M \pm SD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2.46 \pm 0.71
Career barrier	3.59 \pm 0.5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17 \pm 0.8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82 \pm 0.50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of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 = 135$)

Variables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1			
Career barrier	.32(<.001)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2(<.05)	-.39(<.00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3(<.001)	-.57(<.001)	.40(<.001)	1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 13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12	.55	0	2.04	.044
Negative experience due to COVID-19	-.22	.08	-.21	-2.53	.013
Career barrier	-.21	.09	-.19	-2.15	.03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70	.12	.49	5.81	<.001

$R^2 = .37$ Adjusted $R^2 = .35$, $F = 21.47$, $p < .001$

SE=Standardized Error

관계($r = .40$, $p < .001$)가 있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5.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로준비 행동을 종속변수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Durbin-Watson의 검정결과 2.22으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15에서 1.37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회귀방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 = 21.47$, $p < .001$),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약 35%였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 수립과 추후 예기치 않은 감염병 및 부정적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관련 프

로그래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은 5점 만점에 2.46점으로 Moon과 Lee[7]의 연구 3.22점보다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달리 Moon과 Lee[7]의 연구는 2~3년제와 4년제 대학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결과를 초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본 연구와 비교할 만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분석이 어렵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과 달리 교육과정의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을 통한 질병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정적 경험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정적 경험 정도를 줄이기 위한 각 학년별 적용할 체계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5점 만점에 3.59점으로 다른 도구를 이용한 연구라는 제한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나타난 2.22점보다 높아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의 3.84점보다 낮아 진로장벽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실체뿐만 아니라 여러 방해요건이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27] 졸업 학년의 간호대학생들은 국가 시험 및 취업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진로장벽 정도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인지했을 수도 있지만, 계열과 학년 및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어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정적 상황에서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28]의 4.39점보다 낮았으나 Lee[29]의 연구결과인 2.9점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이지만 Park 등[28]의 연구에서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Lee[29]의 연구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교과목이 학년별 차이가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수하는 전공교과목이 많아지고, 임상 실습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학년별 차이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29]의 연구결과와 달랐는데 조사시기가 본 연구는 2023년이었으며, Lee[29]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은 2020년으로 감염병에 대한 상황과 인식 정도,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차이점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학년별로 달라 예기치 않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 행동은 5점 만점에 3.17점으로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의 3.56점보다 낮았고, 전체 학년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의 3.12점과 유사하였고, 1, 3학년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의 남학생 2.27점, 여학생 2.17점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부터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시에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일반대학생에 비해 진로준비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확대와 위기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반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조사된 연구[7]와 코로나19 시기가 아닌 시기에 시행된 연구[5]와 같

이 조사시기와 학년별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성별을 세분화한 반복연구를 통한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과 연령, 평균성적, 진학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30]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이지만 지속 기간의 차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졸업 학년인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대상자가 아니어서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준비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가 달라 연구결과가 동일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r=-.33, p<.001$)과 진로장벽($r=-.57,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r=.40, p<.001$)가 있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높고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면 진로준비 행동이 낮아지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연구[30]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에 부정적이었다[11]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취업과 국가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에게 코로나19라는 부정적 상황이 진로를 저해하는 요소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켜 진로준비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었다. 이는 진로에 대한 장벽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이 오히려 진로준비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19]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감염병 관련 부정적 경험과 진로를 방해하는 비대면 확산과 같은 장벽을 낮게 지각하면

진로준비 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임상 실습을 통해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일반 대학생들처럼 심각한 경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졸업 학년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오히려 진로 준비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로장벽은 개인의 지각정도에 따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11], 예기치 않은 부정적 상황 발생에서도 진로장벽과 그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낮추기 위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이나 지각정도 및 심리적 요소들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 15]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16],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라는 진로를 결정하여 입학하므로 이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위한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려 노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던 시기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임상 수행능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가 있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임상 실습이 간호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요인이므로 진로준비 행동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임상 실습 부족으로 간호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으므로[18] 예기치 않은 비대면 수업이나 임상 실습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임상 간호기술 관련한 여러 과업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정한 진로

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고 관련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촉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및 진로장벽과 음의 상관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그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 상황 발생 시 진로준비 행동 향상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일부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조사한 연구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결과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이에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변화된 사회환경과 학습환경에서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Park YO, Park SJ, Huh J. A study on the effects of employm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community commitment, job seeking efficacy, and job seeking behavior.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2017;7(2):103-124.
<http://doi.org/10.35273/JEC.2017.7.2.006>
2. Oh HS, Lee JH. The effect of career anxiety on the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life goa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0;33(1):85-108.
3. Kim B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97;9(1):311-333.
4. Park HS.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flow,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8. p. 1-90.
5. Park JH. The effects of negative experiences and stress caused by COVID-19 o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2022. p. 1-81.
6. Kim MA,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4;13(4):383-391.
7. Moon MH, Lee YJ. The effect of negative experiences caused by COVID-19 on career compromis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focusing on comparison according to family financial statu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3;30(6):313-337.
<http://doi.org/10.21509/KJYS.2023.06.30.6.313>
8. Lee HR, Kim SM, Cheun MS, Choi SK.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8;21(4):59-80.
9. Kim MJ.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2011. p. 1-64.
10. Chang EH. Disaster and gender: focusing on vulnerability and capacity. *The Women's Studies*. 2016;43:16-23.
11. Sohn ER, Kim KH. The factor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2;14:121-139.
12. John OC.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acGraw-Hill; 1969. p. 638-680.
13. Ocansey F. Career compromise and adjustment among non-professional graduate teachers. *IFE Psychologia: An International Journal*. 2000;8(2):84-95.
<https://doi.org/10.4314/ife.v8i2.23586>
14. Park YH.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the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7;30(2):41-61.
15. Lee MS.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Jeonju University; 2023. p. 1-79.
16. Kim JU, Kim H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2):741-766.
17. Kang JH, Bak AR, Han S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0;14(5):289-297.
<https://doi.org/10.21184/jkeia.2020.7.14.5.289>
18. Cengiz Z, Gurdap Z, Işık K. Challenge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2022;58(1):47.
<https://doi.org/10.1111/ppc.12923>
19. Park YS.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anxiety

-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anxiety contro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22(2):229-241.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229>
20. Park WS, Son SY, Park HS, Park HS. A proposal on determining appropriate sample size considering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Seoul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010;21:51-85.
21. Kim M, Park IH, Kang YS, Kim H, Jhon M, Kim JW, et al. Comparison of psychosocial distress in areas with different COVID-19 prevalence in Korea. *Frontiers in Psychiatry*. 2020;11:593105.
<https://doi.org/10.3389/fpsy.2020.593105>
22. Tak J, Lee K.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 scale: an exploratory study. *Digital Business Studies*. 2001;1(1):167-80.
23. Taylor KM, Betz N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 22(1):63-81.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24. Lee KH, Lee HJ.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12(1):127-136.
25. Park AR, Park SM. A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and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3;30(6):263-288.
<http://doi.org/10.21509/KJYS.2023.06.30.6.263>
26. Jin BJ, Chung HW.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4):295-317.
<http://doi.org/10.22251/jlcci.2021.21.4.295>
27. Lee SS, Jyung CY. A casual model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7;39(4):83-109.
<http://doi.org/10.23840/agehrd.2007.39.4.83>
28. Park SA, Shin KS. Effect of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3;24(2):592-601.
<http://doi.org/10.5762/KAIS.2023.24.2.592>
29. Lee JW, Lee NY, Eo YS.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1):311-320.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11>
30. Park CSI, Chae MJ. Influential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3;21(12):141-151.
<https://doi.org/10.22678/JIC.2023.21.12.141>